

[종합·해설]

“정부 조직개편, 공무원 7,000명 감축”

이경숙 위원장 “우정사업본부 공사 전환... 현 공무원 신분은 보장”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16일 5개 부와 2개 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이 경우 7천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우정사업본부를 공사로 전환할 경우 30%인 3만9천명이 감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조직개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정부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면, 지금보다 5부, 2처, 1청, 5위원회가 줄어든다”며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조직 축소에 따른 공무원 감축 수와 관련,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천명 가까운 공무원도 감축된다”며 “이는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5.3%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시조직이 폐지되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무려 30%에 달하는 3만9천명이 줄어든다”며 “이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그렇더라도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말해 인위적 감

원보다는 자연감소 등을 통해 과잉 인력을 해소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조직개편 배경과 관련, “이번 조직개편은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구두권을 다시 조이도록

공무원을 독립하는 자급제이기도 하다”고 성원을 호소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새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결단을 내렸다. 하던 일이나 소속된 기관이 축소·폐지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이해 관계자, 민원인들 역시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 위원장은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버려야 한다”면서 “민간이 더 잘하는 것은 민간으로, 지방이 더 잘하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그래야만 군살을 뺄 수 있다. 각 부처로 흩어진 비슷한 기능들도 한데 묶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심각한 통일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폐지키로 하는 등 중앙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이어진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통일부에서 통일부 간부들이 회의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복도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당선인 의중+법안 통과 협상용?

■ 통일부 폐지 강수 왜 나왔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북정책 대외정책의 큰 틀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인수위는 전날 밤까지도 내부적으로 통일부를 두고 ‘존치와 폐지’가 팽팽히 맞서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종 폐지 결정은 이 당선인이 직접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인수위 출범 초기에도 통일부의 폐지 혹은 축소는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공조속에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면서 통일부의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7일 인수위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류는 바뀌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 개편도 국민감정과 상징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통일부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여론수렴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상징성을 감안해 통일부를 존치하되 일부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를 국제정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우방과의 면밀한 공조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구상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통일·외교·안보부와 일부 위원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폐지하는 게 효율적인 외교안보정책

집행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적 고려보다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한편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연구해온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16일 주최한 토론회에선 “반통일적 처사”, “기상천외한 발상”, “통일철학 부재” 등의 말이 쏟아졌다.

이들 전문가들은 특히 현 시점이 북핵 폐기 협상의 기로로,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중대한 국면에서 안정관리를 위해 통일부의 존재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접지기’ 해소...식품산업 육성 가속도

농·어업 정책 ‘농수산식품부’로 재결합

정부 내 농·농업·어촌·수산업 10여년 만에 다시 한 지붕 밑으로 모아 ‘농수산식품부’로 거듭난다. 두 부문의 결합으로 ‘접지기’ 문제가 해소돼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부가 작년부터 시동을 건 식품산업 육성 사업도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농수산식품부는 현재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어업·수산 기

능, 보건복지부 식품산업진흥정책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이로써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신설과 함께 분리됐던 농림-수산 정책은 약 12년 만에 ‘재결합’에 성공했다.

인수위측은 “1차 산업의 지원 경로가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으로 분산돼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수산 개방에 대응, 1차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역할을 결집할 필요가 있

다”고 부처 통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1948년 출범한 농림부는 이미 같은 맥락에서 지난 1973년 ‘농수산부’로 개편된 바 있고, 1987년 ‘농림수산부’를 거쳐 20여년 동안 어업 및 수산업무를 함께 관할한 ‘경력’이 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내에서 농림부가 깨지고 추진하는 식품산업 육성 전략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인수위측은 명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식품업계 인·허가권을 포함한 식품산업진흥정책 기능을 농림부에 주는 동시에 부처 아래 ‘식품산업본부’까지 두도록 했다. /연합뉴스

조직은 ‘슬림화’ 기능은 ‘강화’

청와대 ‘작지만 강하게’... 총리실 위상은 대폭 ‘축소’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청와대 조직은 ‘작지만 강하게’, 총리실 위상은 ‘축소’되게 됐다.

청와대의 경우 조직을 슬림화했지만 청와대의 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용정부의 정점으로서 청와대 조직의 일신을 시도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조직의 축소로, 현재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로 이원화된 조직을 ‘대통령실’로 일원화해 경호실을 대통령실 산하 경호처로 축소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 내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부 체제로 대통령 비서

실 단일체제로 변경했다. 장관급의 4개 실장이 장관급 1개 실장 체제로 슬림화된 것이다.

반면 총리실 위상은 급격히 축소되게 됐다.

현행 국무조정실과 비서실 2실 체제는 국무총리실(장관급) 1실 체제로 바뀌고 산하에 차관급인 국무차장과 사무차장이 자리하게 된다.

직급별로는 현행 ‘1장관 3차관’(국무조정실장, 기획차장·정책차장·비서실장)에서 ‘1장관 2차관’(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사무차장)체제로 조정된다.

외견상 국무조정실의 명칭이 사라

지게 된 것이 눈길을 끈다. 국조실이 없어지고 조직 자체가 축소되면서 총리실의 위상과 권한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청와대와 중복되는 정부, 민정, 공보수석 제도는 아예 폐지되고 정부 및 공보 기능은 사무차장 산하 정부실과 공보실로 편입된다.

참여 정부에서 사실상 ‘내치’를 담당하며 ‘힘’을 과시했던 총리 권한 역시 대통령 보좌 및 일상적인 국무조정 기능으로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인원으로 현재 624명에서 조직개편 후 300명으로 절반 이상 줄게 된다. /연합뉴스



=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

겨울방학 교육학+전공특강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문제모음 기회!! 최고의 작정들을 자랑하는 현대고시원용 교수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영어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합격설명회 =
배우 - (화,목) 오후 6시 - (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동부경합서 옆
www.hgosi.net 062)222-6790

= 겨울방학 대 특강!!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 직종

행정직, 교원직, 세무직, 관공직, 감사직, 법원직, 경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지공직, 토목직, 건설직, 물리직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1월 15일 주·야 (총화)반모집 (협재예알)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1!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222-4560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합격대 특강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경찰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교정직, 소방직, 농림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보건직, 기술직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완성) 개강 2월 1일

9급 이론짜수반 (2개월완성) 전직종 첫진도

www.hanbitgosi.co.kr

한빛공무원학원 전대원은 부구청앞
062)252-0252

SONY New BRAVIA

고객감사축제·TV중고보상판매

KDL-52W3500 KDL-52X3500

소니는 화질에 관한 어느 TV와도 비교를 거부합니다!!

행사1: 고객감사 축제

- W시리즈 가격인하
- X3000시리즈: 15~20만원 상품권 증정 or 컬러베젤 무상 증정
- X3500시리즈: 30만원 상품권 증정

행사2: TV중고 보상 판매

- W시리즈: 30만원 중고 TV보상
- X3000/3500시리즈: 50만원 중고 TV보상

상호협력
불교방송
도청 - 임동오거리 - 터미널

062)522-2000